

제목 : 한-에티오피아간 희유금속 공동탐사 및 개발 합의

담당부서 외교부 > 국제경제국 > 에너지기후변화
과
조회수 207

게시일 2011-01-23 15:40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에너지기후변화과

전화번호 02-2100-8194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28호 문 의 :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2100-8194) 배포일시 : 2011.1.23(일)

제 목 : 한-에티오피아간 희유금속 공동탐사 및 개발 합의

1. 아프리카 경제협력 사절단을 인솔하고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1.21(금) 에티오피아 광업부 Tolesa Shagi 차관을 면담, 에티오피아의 탄탈륨, 리튬 등 희유금속 부존 유망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도 작성 및 공동탐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생산중인 탄탈륨 광산에 대한 지분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음.

○ 탄탈륨은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내열합성합금 소재로 사용되는 희유금속으로서, 산화물 가격은 Kg당 약 400불이며, 한국은 매년 4,000톤(니오비움 산화물 포함)을 수입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탄탈륨 세계생산량의 10%를 공급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광물자원개발회사 (Ethiopian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Share Company, EMDSC)가 에티오피아 남부 Kenticha 지역에서 주로 생산중이며, 여타 지역에도 탄탈륨 등 희유 금속 부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에티오피아측은 2011-2015년 5개년 경제개발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하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광물자원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측의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김은석 대사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지속가능한 광물자원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역량강화, 정밀 지질도 작성(1: 100,000 또는 1: 50,000) 및 공동탐사를 협력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에티오피아측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 등 양국 전문가 그룹간 관련 협의를 통해 탄탈륨, 리튬 등 희유금속의 공동탐사에 합의하고, 현재 생산중인 Kenticha 지역의 탄탈륨 광산에 대한 지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던 것임.

○ EMDSC는 탄탈륨, 리튬 등 희유금속 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자료를 광물자원공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에티오피아 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 of Ethiopia)와 공동으로 에티오피아의 전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도, 지화학도 및 지구물리도를 작성하고 희유금속 자원에 대한 공동 탐사를 추진하기로 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티오피아 지질조사소가 합의한 MOU 초안은 지질도 및 지화학도 작성, 지표 및 항공물리탐사, 광물자원 공동탐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원격탐사기술(Remote Sensing)을 이용한 광물자원 잠재성도 작성 기술전수와 기술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4. 그 외 아프리카 경험사절단은 1.20(목) - 21(금)간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를 방문하여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Alemayehu 수자원에너지부 장관, Tadesse 통상산업부 차관을 면담, 수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사업과 석유, 농업,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음.

첨 부 : 에티오피아 약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